

여자배구 4강 좌절...한국, 구기 단체 44년만에 노메달

네덜란드에 1대3 패배...축구·배구·핸드볼·하키 모두 메달 획득 실패

1972년 뮌헨 대회 이후 처음...총 메달수 32년만에 20개 이하 될 듯

한국 스포츠가 하계올림픽에서 44년 만에 단체 구기 종목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한국은 여자배구 대표팀이 16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준준결승에서 네덜란드에 1-3(19-25 14-25 25-23 20-25)으로 졌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단체 구기 종목인 남자 축구와 여자 배구, 핸드볼, 하키가 모두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이 확정됐다.

남자 축구는 온두라스와 8강전에서 0-1로 졌고 여자 핸드볼과 하키는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이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은 1972년 뮌헨 올림픽 이후 44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76년 몬트리올을 올림픽에서 여자배구가 동메달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는 여자농구와 핸드볼이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배턴을 이어받았다. 1988년 서울에서는 여자핸드볼이 단체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쾌거를 이뤄냈고 여자하키와 남자핸드볼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때는 여자핸드볼이 또 금메달을 따내 단체 구기 종목 메달의 명맥을 이었고 1996년 애틀랜타 때는 여자핸드볼과 여자하키가 나란히 은메달을 가져왔다. 2000년 시드니에서는 남자하키 은메달, 야구 동메달 소식이 들려왔고 2004년 아테네 때는 여자핸드볼이 '우생순' 감독의 명승부로 또 은메달을 수확했다.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야구가 남자 종목 최초로 올림픽 단체 구기 금메달을 따내며 온 국민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여자핸드볼은 동메달을 보냈다. 또 2012년 런던에서는 축구 대표팀이 8강에서 '중주국' 영국, 3~4위전에서 '숙적' 일본을 연파하며 감독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축구와 배구, 핸드볼, 하키가 메달 획득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모두 4강 이전에 짐을 싸게 됐다. 개인 구기종목이라 하더라도 이제 남은 것은 탁구와 골프가 전부다.

44년 만에 단체 구기 종목 노메달 속에 한국은 금메달 개수가 아니라 메달 총수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자칫하면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32년 만에 전체 메달 개수가 20개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선수단은 대회 개막 11일째를 마친 17일 오전까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에 그치고 있다. 체급별 세계랭킹 1위 선수가 4명이나 몰려 있던 유도가 '노골드'로 대회를 마친 것을 필두로 기대했던 배드민턴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탁구도 '만리장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사격과 펜싱, 레슬링 등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중주국'의 자존심 태권도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선수들이 출격하는 여자골프다. 하지만 태권도와 여자골프에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한국선수단은 30여 년만에 총 메달 수가 최저를 기록할 공산이 커졌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냥지뉴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해 4강진출이 좌절됐다. 김연경이 실점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김연경 아쉬움의 눈물

네덜란드전 혼자 27점 활약

“후배들 해외 문 두드렸으면...”

“클럽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표팀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40년 만의 올림픽 메달 꿈이 좌절된 여자배구 대표팀의 주장 김연경(28·터키 페네르바체)은 눈물을 글썽했다. 2016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에서 네덜란드에 세트 스코어 1-3으로 패한 직후다.

김연경은 “네덜란드 선수들이 잘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며 “하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안 풀렸다. 서브, 서브리시브, 상대 주 공격수 마크가 모두 잘 안 됐다”고 총평했다.

한국은 예상대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 김연경 위주의 플레이를 보였다. 김희진, 박정아, 이재영 양

효진 등 4명의 득점을 모두 합쳐도 김연경 혼자 올린 27점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김연경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다. 4년 전의 실패를 답습했다.

김연경은 “우리가 네덜란드를 잘 알듯이 네덜란드도 우리를 많이 알았던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당황한 면도 있고, 중간중간 고비를 잘 못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터키리그 포스트시즌 파이널리그까지 치르고 5월 2일에 귀국했다. 한국은 당시까지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연경 덕분에 한국은 세계 예선에서 리우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김연경은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 있는 언니들이 특히 아쉬웠던 것 같다”며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힘을 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실력에서 잘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연경은 “최선을 다한 거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경기는 끝났는데 어떻게 하겠다. 4년 뒤를 기약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경기를 풀어야 할지 생각하느라 어제 잠을 잘 못 잤다. 긴 여정이 마무리된 한쪽으로는 훌기분하기도 하지만 후회스러운 것 같기도 하다. 내 역할을 다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후배들의 경험 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해외 문 보다 적극적으로 두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연경은 “국내 시합에 만족하지 말고 각자 노력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된 경험이 있으면 이런 큰 대회에서 더 잘할 수 있다. V리그에서 통했지만 국가대항전에서는 안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경험을 더 쌓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체조 여제’ **美바일스 4관왕** 1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여자 기체체조 마루 결선에서 미국의 시몬 바일스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바일스는 15.966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바일스는 이번 대회 4관왕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손연재 6년 땀방울 결실의 시간 왔다

내일 개인종합 예선 출전

손연재(22·연세대)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장에 러시아 리듬체조 대표팀과 함께 도착한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그곳에는 일본의 국가대표 미나가와 가호(19)도 있었다. 미나가와와는 왠지 낯익게 사진을 찍는 러시아 선수들 사이에서 외로운 섬과 같았다. 미나가와의 모습은 6년 전 세종고 1학년 때 러시아로 홀로 유학을 떠난 손연재를 떠올리게 했다.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에서 텃새와 홀대,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었지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손연재는 상파울루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뒤 결정지인 리우로 떠나기 직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초등학생 때 받은 엽기 사진을 올렸다. 손연재는 그 사진 옆에 “지금까지 정말 참 잘 왔다 꼬꼬마”라고 적었다.

수많은 인내와 고통, 좌절의 시간을 버텨내고 이 자리에까지 온 스스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 읽혔다. 손연재가 자신을 지탱하게 만들었던 목표인 올림픽 메달을 향해 연기를 펼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손연재는 19일 오후 10시 20분부터 리우올림픽 경기장에서 대회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에 출전한다. 참가선수 26명 중 상위 10위 안에 들면 역시 21일 오전 4시 59분부터 개인종합 결선이 시작된다.

손연재가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을 수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올 시즌 국제체조연맹(FIG) 주관 월드컵 대회 기준으로 손연재의 개인종합 최고점은 74.900점으로, 강력한 동메달 후보인 우크라이나의 간나 리자트디노바(75.150점)에게 뒤진다. 큰 대회에서 더욱 강한 특유의 저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메달에 도전할 만한 후보다. 손연재가 러시아에서 6년 넘게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의 꿈을 향해 바쳐온 땀과 눈물이 보답을 받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연합뉴스

신태용 감독 “선수들 뽕뽕 뭉쳐 잘 싸워줬다”

축구대표팀 귀국...손흥민 비난 자제 당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16 리우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2승1무 1조1위로 8강에 진출했지만, 8강전에서 온두라스에 0-1로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강 진출에 실패한 올림픽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귀국길에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손흥민(토트넘) 등 선수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신태용 감독은 17일 선수단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열렬히 응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선수들은 내가 바랐던 것을 모두 쏟아내 열심히 뛰었다. 선수들은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2승 1무 1조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온두라스에 0-1로 석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온두라스전에서는 우세한 경기를 치르고도 정작 골을 넣지 못해 패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 등 공격수를 비난하고 있다.

신태용 감독은 이에 대해 “손흥민, 석현준(트라브존스포르), 장현수(광저우) 등 와일드카드 3명의 선수는 제 몫을 다했다”며 “특히 손흥민은 뒤편에 합류했지만, 도착하자마자 후배들을 챙기느라 바쁘게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의 헌신이 없었다면 팀이 더 어려웠

을 것이다. 손흥민은 8강전을 마친 뒤 온종일 울었는데, 내 가슴도 미어졌다”며 “손흥민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우올림픽이 갖는 의의도 설명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번 올림픽 대표팀은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를 들었다. 본선 진출조차 쉽지 않다고 평가 받았지만, 뽕뽕 뭉쳐 잘 싸워줬다”며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더 자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태용 감독은 앞으로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성인 대표팀 코치로 합류해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을 함께 한다.

조별리그 1차전 피지와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류승우(레버쿠젠)는 “대회 직전까지 몸 상태가 매우 좋았는데, 피지전에서 종아리를 다쳐 그 다음 경기부터 제대로 못 뛰었다. 그래서 더 아쉽고 안타깝다. 대회가 끝난 게 실감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승우는 소속팀으로 복귀한 다른 해외파 선수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독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해외파인 손흥민, 석현준, 장현수, 황희찬(잘츠부르크), 김민태(베갈로), 구성운(콘사도레)은 별도 항공편을 이용해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